

[CES 2020 D-2] 5G 먹거리 구상 이통 3사 수장 글로벌 행보 03



Economy

→ 코스피	→ 코스닥
2176.46 (0.00)	669.93 (0.00)
↓ 금리 (미국 3년)	↑ 환율 (원-달러)
1.27 (-0.06)	1167.10 (+9.00) (3일)

# 현대차, 美 LA서 카셰어링 사업 시동

## 1시간 주행시 12달러 모션랩, 우버와 맞짱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도약 실증 법인 설립... 혁신 검증 나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미래 모빌리티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에서 친환경차를 앞세워 세계 최대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내 미래 모빌리티 사업 실증을 위해 '모션랩'을 설립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LA 시내 중심가(다운타운)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에서 만난 정현택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 모빌리티사업실장(상무)은 "2025년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기업을 넘어 고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시장환경 등 여건이 성숙된 미국 LA에 실증사업 법인인 '모션랩'을 설립했다"며 "최근 시작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혁신 모빌리티 사업 검증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 ◆LA는 현대차그룹이 선택한 세계 최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실험실

현대차그룹이 미국 LA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며 2028 올림픽 앞두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택 상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 중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인 LA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필요

성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LA는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근 지역의 위성 도시들까지 합치면 약 1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또 2014년 미국 브루스킹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8604억 달러의 GDP(국내총생산)를 발생시키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LA의 교통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간 24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과밀화된 교통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있다.

LA시는 202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심각한 교통 문제 해결 등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25 비전 제로' 계획을 선언했다. 2025년까지 ▲내연기관 제로 ▲교통사고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4면에 계속>**

/로스 앤젤레스(미국) =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CES 2020'서 LG 씽큐 광고

LG전자가 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LG 씽큐(ThinQ) 광고판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3, 8면> /연합뉴스

## “금융업 빅데이터 전문인력 확보가 과제”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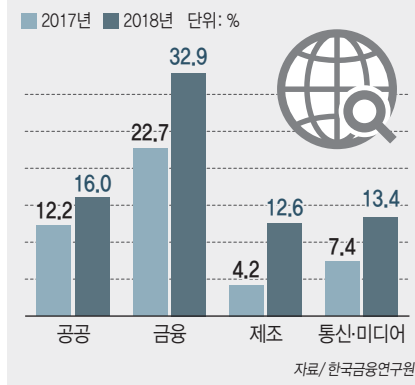
전체 업종 중 도입률 33% '최상' 빅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목소리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되고 오픈뱅킹이 시행되는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금융회사 또한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5일 발표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분기 기준 금융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32.9%를 기록해 전체 업종(평균 1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 '최상'**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금융계의 관심도 크다.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추진 계획 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사업은 16%

### 업종별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 비교



를 차지했다.

신용정보법·오픈뱅킹 등 제도 변화에 따라 각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들은 가명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마찬가지로 가명정보가 통계작성 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12월 18일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으로 은행들이 타행계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목표 고객 추출·상품추천모델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축적도 가능해졌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현재 대다수 금융회사는 데이터 기반 경영을 최대 목표로 삼고,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처리·저장·분석 과정을 효율화하는 인프라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인력·이종산업간 융합이 과제** 연구소는 금융사의 원활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 ▲정보간 결합 활성화 ▲오픈 API 기능 명확화 등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홍민영 기자 hong93@

**내일의 솔루션은 기술에 있습니다.**

77억명 모두 고갈 걱정없는 무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화학 기술을 더하고 미래 첨단소재의 기술까지 더한다면 내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더 많은 솔루션들이 찾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화케미칼, 한화규셀, 한화첨단소재가 기술로 시대의 문제를 풀어낼 한화솔루션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은 한화케미칼, 한화규셀, 한화첨단소재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회사의 이름입니다.